



선현미담
붉은 옷의 장군, 곽재우

나이 · 어린이(6~9세)

주제 · 목표: 곽재우와 의병의 이야기를 통해 용기와 지혜, 협동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 주제: 용기, 지혜, 협동

핵심어 · 용기, 지혜, 협동, 곽재우, 홍의 장군, 의병, 붉은 옷

한국 문화 · 목표: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백성이 스스로 만든 군대에 대해 알 수 있다.
· 요소: 의병

한국어 · 목표: 동사 '지키다'의 다양한 의미를 배우고 활용한다.
· 단어: 지키다
· 표현: 약속을 지키다, 가족을 지키다, 자연을 지키다, 나라를 지키다.

🌸 구연활동내용



인사 나누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OOO,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예요.



제목 알리기

오늘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는, 제목 나와라 딱딱!
'붉은 옷의 장군, 곽재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일본군이 조선에 자주 쳐들어왔어요.
그때,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나라를 지키려고 스스로 나선 선비가 있었답니다.
이 선비의 이름은 곽재우였어요. 곽재우는 원래 높은 벼슬도 없었고, 전쟁하던 군인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위험해지자, 붉은 옷을 입고 군대를 모아 용감하게 싸웠지요. 과연 그는 어떻게 싸웠을까요? 용기 있는 곽재우 장군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 볼까요?



이야기 시작 노래 부르기

'붉은 옷의 장군, 곽재우' 이야기 속으로 출발!

🎤 **하나 둘 셋 넷! 이야기 시작! 우리 모두 신나게 잘 들어 보아요.**

👂 **귀는 쫑긋 ✨ 눈은 반짝 준비됐나요? 하나 둘 셋 넷! 출발합니다. 뽕뽕!** 🔊



🌸 이야기 들려주기

옛날 조선시대 의령에 곽재우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곽재우는 평소처럼 한가로이 낚시를 하고 있었지요. 그때 하인들이 헐레벌떡 뛰어와 소리쳤어요.

“나리, 큰일 났습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일본군이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곽재우는 깜짝 놀라 물었어요.

“뭐라? 일본군이 쳐들어왔다고? 그럼 어서 나가 다 같이 싸워야겠구나! 다들 준비하거라!”

하인들은 어리둥절했어요.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어찌 나가 싸웁니까? 다들 피하느라 정신이 없는데요. 무기도 하나 없습니다.”

“맞습니다. 일본군은 조총이라는 무서운 무기를 들고 왔다고 합니다. 펑펑 소리와 함께 날아온 총탄에 맞아 사람들이 모조리 죽는다고 합니다.”

곽재우는 그 소리를 듣고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일본군이 쳐들어왔으면 싸워 나라를 지켜야지! 모두 나와 함께 싸우자!”

곽재우는 열댓명 정도 되는 하인들을 모아 군대를 만들었어요. 마을 사람들에게도 같이 나가 싸우자고 말했지요.

일본군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선 땅 곳곳을 파고들어 조선인을 괴롭혔어요. 곡식과 재물을 훔쳐 가고 사람도 해쳤지요.



❁ 이야기 들려주기

“자, 어서 힘을 모아 일본군을 물리치자! 맞서 싸워야 해!”

포기하지 않고 군사를 모아 훈련을 시키는 곽재우를 보며 사람들의 마음도 점점 변했어요.

“그래, 우리라도 싸워 나라를 지키자!”

“맞아, 선비님도 저리 열심히 하시는데!”

곽재우의 변함없는 모습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전쟁으로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지키려고 스스로 군인이 되어 싸운 백성을 ‘의병’이라고 해요. 곽재우의 의병 부대는 며칠 만에 50명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몇 달 뒤에는 몇백 명이 되었지요. 해가 지나고 전쟁이 길어질수록 의병은 점점 더 많아져, 나중에는 몇천 명이나 되었어요.

곽재우는 붉은 옷을 입고 군대의 맨 앞에서 용감하게 싸웠어요. 그의 용감한 모습에 사람들은 크게 힘을 얻었지요. 사람들은 붉은 옷을 입은 장군이라는 뜻으로 곽재우를 ‘홍의 장군’이라고 부르며 늘 존경했어요.

“저기, 홍의 장군 나가신다!”

“장군님을 따르자! 우리는 할 수 있어!”

다들 그렇게 외쳤지요.



❁ 이야기 들려주기

조선인과 달리 일본군은 홍의 장군 곽재우가 무서웠어요. 곽재우가 나타났다면 수많은 조선 사람들이 온 힘을 다해 끝까지 싸우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곽재우의 붉은 옷 때문에 걱정했어요.

“장군님, 붉은 옷이 너무 눈에 띄니 걱정입니다.”

“맞습니다. 더군다나 늘 맨 앞에서 싸우시니 적군이 가장 먼저 노릴 거예요. 위험합니다!”

하지만 곽재우는 꺾꺾꺾 웃으며 대답했어요.

“내 걱정은 마라. 내가 먼저 적의 눈에 띄니 더 좋은 것이 아니냐. 그 틈을 타 너희가 재빠르게 적을 칠 수도 있고 말이다.”

“아무리 그래도 늘 걱정입니다.”

곽재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부하들을 바라보며 힘 있게 말했어요.

“음, 그렇다면 이건 어떠냐? 너희 말을 들으니 좋은 생각이 났다!”

부하들은 곽재우의 생각을 듣고, 고개를 크게 끄덕였지요.

“그거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장군님!”

얼마 뒤, 일본군은 마을에서 가까운 강을 건너려 하고 있었어요. 그걸 유심히



❁ 이야기 들려주기

지켜보던 홍의 장군은 망설임 없이 붉은 옷을 입고 나타나 찌렁찌렁 울리도록 소리쳤지요.

“네 이놈들! 여기가 어디라고 또 함부로 강을 건너려 하느냐! 혼쭐이 나와 정신이 들겠느냐! 자! 어서 공격하라!”

홍의 장군의 말에 건너편에 숨어 있던 의병들이 화살을 쏘기 시작했어요. 강을 건너려던 일본군은 놀라 우왕좌왕했지요.

“정신을 차려라! 저 붉은 옷을 입은 장수부터 공격하라!”

일본군의 장수가 홍의 장군을 노려보며 외쳤어요.

“공격! 공격!”

일본군은 홍의 장군을 향해 총을 겨누었어요. 아무리 힘이 세고 날쌔던 홍의 장군이라도 수많은 총을 피할 수는 없었지요.

그때였어요.

“으하하! 내가 홍의 장군이다! 난 여기 있다!”

일본군의 바로 뒤에서 호탕한 웃음소리가 났어요. 뒤를 돌아본 일본군은 깜짝 놀랐지요. 바로 앞에 붉은 옷을 입은 장군이 서 있지 뭐예요.



🌸 이야기 들려주기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정신이 없는 일본군 앞에 또다시 다른 홍의 장군이 나타났던 거예요.

“여기를 보라! 내가 홍의 장군이다! 날 쫓라!”

일본군은 여기저기서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홍의 장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렸지요. 그 틈을 타 의병들은 일본군을 공격했어요.

“아이고, 대체 홍의 장군은 누구란 말이냐!”

결국, 뿔뿔이 흩어진 일본군은 의병의 저항에 지고 말았어요. 여러 명이 붉은 옷을 입고 홍의 장군처럼 여기저기 나타나서 일본군을 혼란스럽게 하는 방법이 효과를 보았던 거예요. 광재우의 이런 지혜로움과 용기 덕에 조선 사람들은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있었답니다.



🌸 구연활동내용



한국 문화, 한국어 소개하기

여러분,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잘 들었나요?
일본군이 쳐들어왔을 때, 광재우가 스스로 군대를 만들어 일본군과 싸운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죠. 지키는 것은 소중한 것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예요. '친구와 약속을 지키다', '규칙을 지키다', '예의를 지키다' 등 평소 우리는 지키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소중히 지키는지 생각해 보아요!

여러분, 일본군이 조선에 자주 침입했어요. 그런데 나라의 군대만으로 싸울 수가 없어지자, 백성들이 스스로 군대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래요. '의병'이라고 해요. 광재우는 원래 벼슬이 없는 선비였어요. 그런데 나라가 위험해지자, 스스로 의병을 모아 무기를 들고 싸웠답니다. 의병은 훈련받은 군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힘을 모아 싸웠지요. 그래서 싸움에서 큰 승리를 많이 거두었어요. 의병은 나라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일어나 싸운 용감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분들의 용기 덕분에 나라를 지킬 수 있었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감하게 싸운 의병들의 이야기가 궁금한 친구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아요!



🌸 구연활동내용



이야기 정리하기

여러분, 할머니와 '붉은 옷의 장군, 곽재우' 이야기를 정리해 보아요.

조선시대 때 곽재우는 일본군이 쳐들어오자 피하지 않고 백성과 함께 의병을 만들어 싸웠어요. 처음엔 하인들과 몇 명뿐이었지만, 곽재우의 용기와 나라 사랑에 감동한 사람들이 모여 점점 큰 군대가 되었지요. 곽재우는 붉은 옷을 입고 앞장서 싸웠어요. 그런데 쉽게 적의 눈에 띄까 봐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 명이 똑같이 붉은 옷을 입게 해 적을 헛갈리게 만들었지요. 그 덕분에 의병들은 일본군을 물리칠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도 의병 곽재우의 용기와 지혜로움을 본받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야기 마치는 노래 부르기

그럼, 이야기 마치는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할머니랑 인사합시다. 이야기 마치는 노래 시작!

🎤 하나 둘 셋 넷! 잘 들었어요. 우리 모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 귀는 쫑긋 ✨ 눈은 반짝 정말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만나요. 뽕뽕! 🔊



인사 나누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다음에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또 만나요. 안녕!

